

재정위기 여파 속, 미국 경제 현황 점검

(2011. 8. 5)

[목차]

요약	1
I. 금융·외환시장 동향	4
II. 실물경제 동향	10
III. 주요산업별 Snapshot	19
IV. 주요 정책 동향	22

작성 : 구미팀 이정선(jeongsunny@kotra.or.kr)

감수 : 지역조사처 윤재천 처장(jay@kotra.or.kr)

요 약

[금융 · 외환시장 동향]

- (기준금리) 최근 미국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, 연준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0~0.25%인 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
- (주가) 6월 중순이후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국면에 진입했으나, 미국 경기 회복세 둔화와 재정지출 축소 등으로 증시 폭락
- (환율) 5월 들어,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,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, 안전 통화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지표 부진과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 유로화/엔화/원화 대비 약세로 전환
- (10년 국채수익률) 올 4월 이후, 유럽 재정위기,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
 - * 미국 국채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가 없어, 부채 협상 난항 중에도 미 국채 수익률은 낮은 수준 유지

[실물경제 동향]

- (경제성장률) 생산활동 부진 및 가계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둔화 되면서, 소프트패치이나 더블딥인지를 두고 논란 가중
 - * 분기별 경제성장률 : 0.4%(1Q), 1.3%(2Q)
- (소비)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개인소비지출은 가솔린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와 고실업률 지속,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부진한 상황
 - * 6월 소비지출은 2009년 9월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(전월대비 0.2%)
- (고용)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며, 6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9.2% 기록
- (물가) 6월 중 소비자 물가(CPI)는 전년 동월대비 3.6% 증가, 생산자물가(PPI)는 전년 동월대비 7.0% 오르는 등 물가 상승세 지속

- (산업생산) 올해 2분기 들어 회복세 크게 둔화되었으나,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이 점차 정상화되는 3분기 이후에는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, 재정지출 감소, 소비둔화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 가능
- (설비투자)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고, 신흥시장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해외수요가 급증하여, 설비투자 동반확대
 - * 2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5.7% 증가
- (주택시장) 기존 및 신규주택 판매가격 하락세 지속,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나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회복할 것으로 전망
- (대외교역) 5월 무역수지 적자는 502억 달러로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
 - * 금융위기 이후 2009년 5월 255억 달러까지 감소,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

[주요 산업별 Snapshot]

- (무선통신기기) 스마트폰 수요 급성장에 힘입어, 무선통신기기 수요 신장세
- (자동차/자동차부품) 일본 대지진 여파로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일시 둔화되었으나, 하반기에는 일본 자동차 공급 회복으로, 재정지출 감소, 소비둔화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 가능
- (반도체) 반도체 기술이 응용된 전자제품 생산 증가로 반도체 수요가 연평균 1.6% 성장 예상
- (가전) 미국 내 가전제품의 수요는 판매처의 감소와 함께 지난 5년간 감소세, 올해는 소폭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나, 경기 둔화로 타격 우려
- (기계) 자동차 판매 회복으로,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시설투자를 늘리고 있어, 기계 수요가 증가
- (섬유/의류) 온라인/홈쇼핑 판매 강세에 힘입어 수요 강세(신규주문과 생산량 모두 증가세)

[주요정책 동향]

- 재정적자 감축안/부채한도 인상안(Budget Control Act) 통과(8.2)
 - 2012년 말까지 적용되는 부채한도를 3단계에 걸쳐, 2.1~2.4조 달러 인상
 -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2.1조~2.4조 달러 감축
 - 균형재정을 위한 헌법수정 표결 연내 추진
- 경기부양수단으로 Fed의 통화정책(초저금리 유지정책, 초과지준부리울 인하, 국채매입 등)만 남은 상황으로 3차 양적완화 가능성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
- 유럽, 중국, 브라질 등에서도 경쟁적으로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, 1930년 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나타난 근린궁핍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동반 악화를 야기할 우려
- 부채한도인상 법안 통과로, 그간 뒷전으로 밀렸던 한미 FTA 법안이 9월 개원 시에 통과 예상 → 민주·공화 상원 원내 대표간 TAA와 FTA 법안 추진 방식에 대해 합의 발표(8.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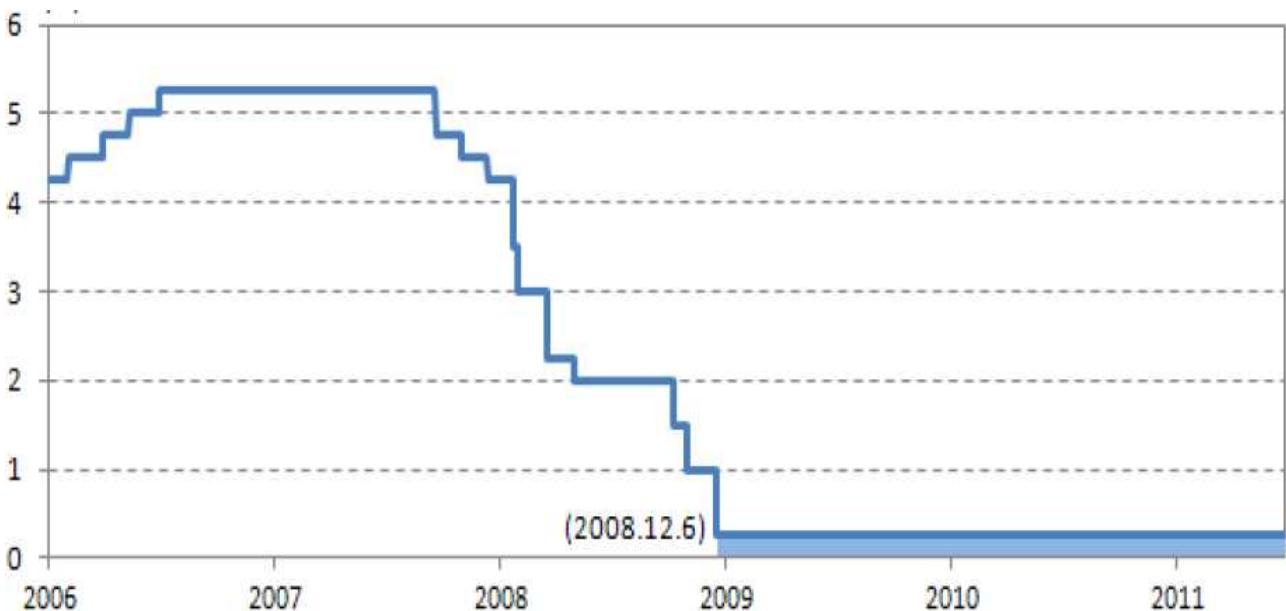
1

금융 · 외환시장 동향

□ 금리

- (기준금리) 미국 기준금리(Federal Fund Target Rate)는 2008. 12월에 사상 최저 수준인 0~0.25%까지 인하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
 - 최근 미국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연준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
 - 현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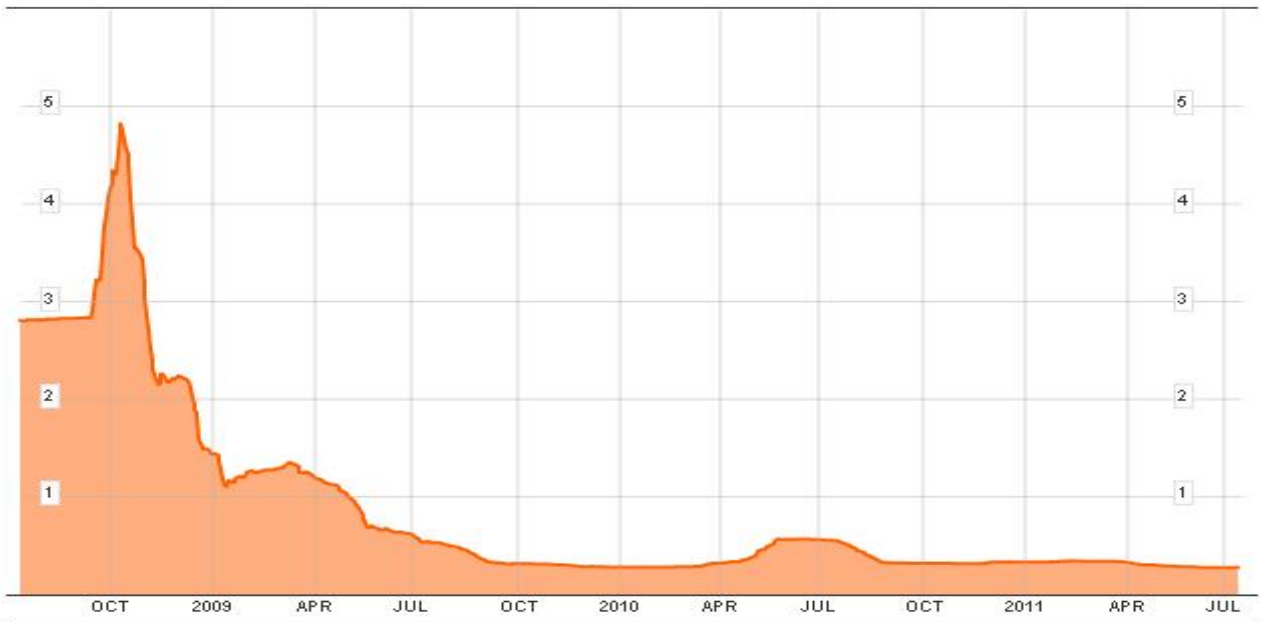
< 미국 기준금리 추이 >



자료원 : Federal Reserve

- (은행간 대출금리) 은행간 3개월 대출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급등하였으며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힘입어 안정세
 - 은행 간 대출금리(3개월)는 리먼사태 이후 6주 동안 2.81% → 4.82%로 급등
 -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연준이 실시한 두 번의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은행 간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현재 0.26%까지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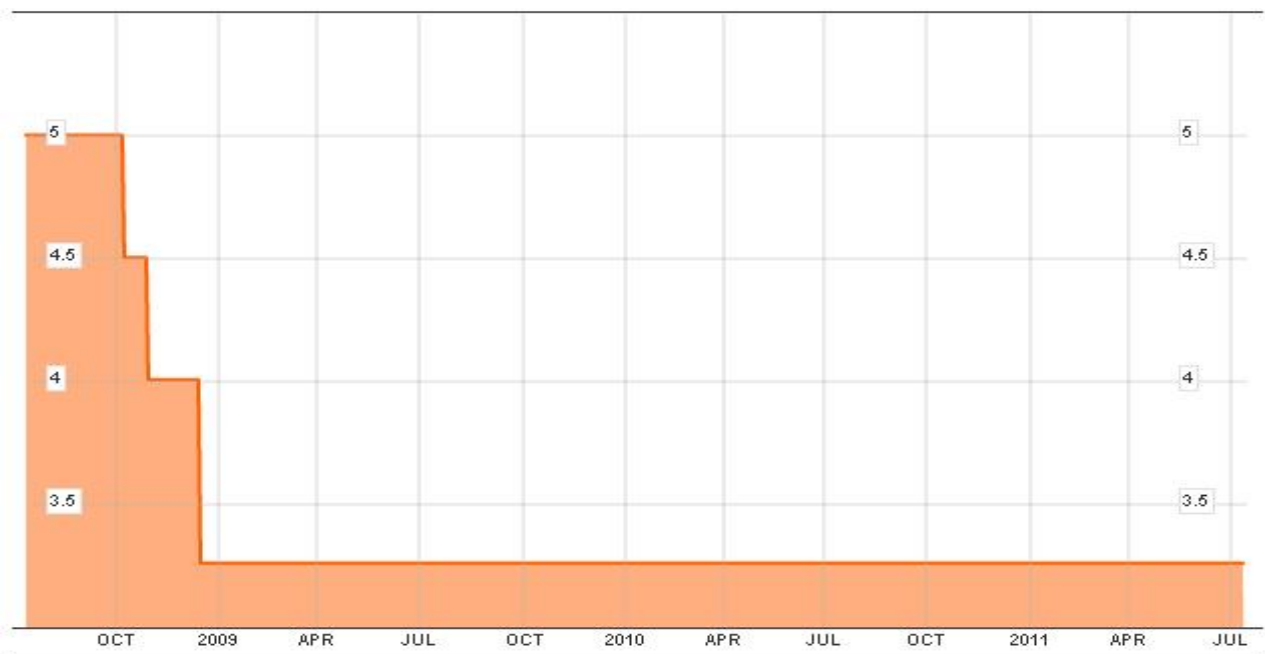
< 은행간 대출금리(3개월) 변화 추이 >



자료원 : www.bloomberg.com

- (Prime Rate) 미국 일류 기업에 적용되는 우대 금리(Prime Rate)로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에 따라 2008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사상 최저수준인 3.25% 유지

< Prime Rate 변화 추이 >



자료원 : www.bloomberg.com

□ 주가

- 올해 들어 미국 3대 주가인 다우지수, 나스닥, S&P 500 등은 3월까지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연초 대비 각각 7.2%, 4.5%, 5.0% 상승
 - 3월 이후 중동 사태, 일본 지진피해, 그리스 재정위기, 2차 양적완화 정책 종료 우려 등으로 일시적인 약세를 보였으나 기업 실적호조 등으로 5월까지 회복세 시현
 - 5월 이후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6월 중순이후 기업 실적개선 등에 힘입어 다시 상승국면 진입
 - 최근에는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와 부채한도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등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증시 폭락
- * 특히, 다우지수는 8. 2일 260 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심리적 저지선인 12,000 붕괴

< 미국 주가변화 추이 >



자료원 : finance.yahoo.com

□ 달러 환율

- 달러화는 5월 들어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,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통화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기지표 부진과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다시 약세로 전환

- 7월 말까지 부채한도 인상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달러인덱스 (Dollar Index)¹⁾는 7. 26일에 73.4까지 하락하였으나 부채한도 인상협상이 타결된 이후 74.5까지 반등(8.2일 기준)

< 달러인덱스 변화 추이 >



*자료원 : www.bloomberg.com

- (유로/달러)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그리스 의회의 재정 긴축안 의결, 유럽 중앙은행의 7월 중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약세로 전환

<유로화/달러 환율 추이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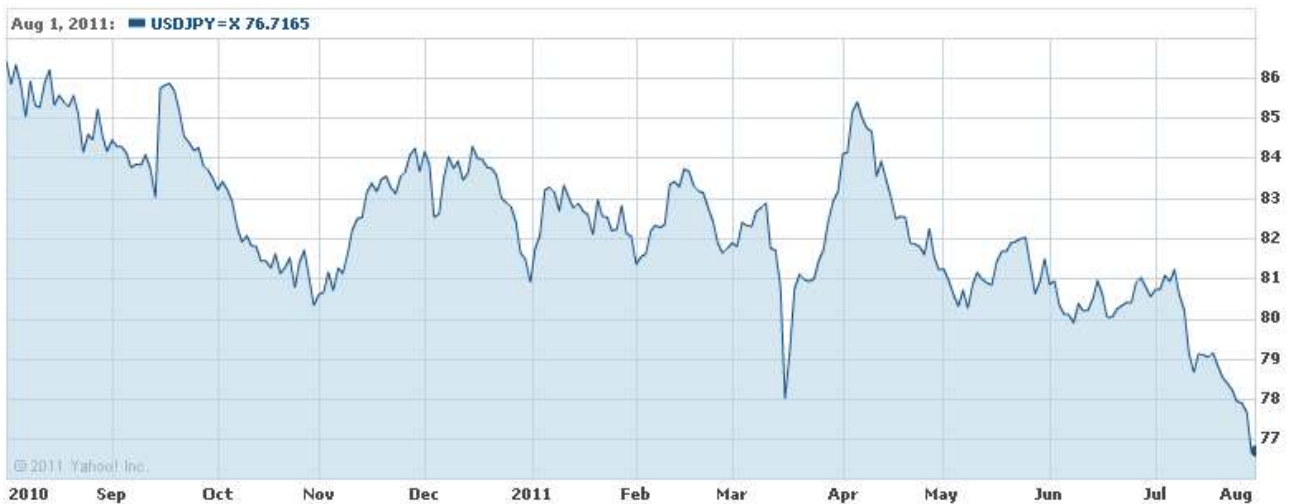


자료원 : finance.yahoo.com

1) 유로, 엔, 영국 파운드, 캐나다 달러, 스웨덴 크로나, 스위스 프랑 등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

- (엔화/달러) 지난 3월 일본 지진피해의 영향으로 엔화의 가치가 급락해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일시적 강세를 보였으나, 이후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다시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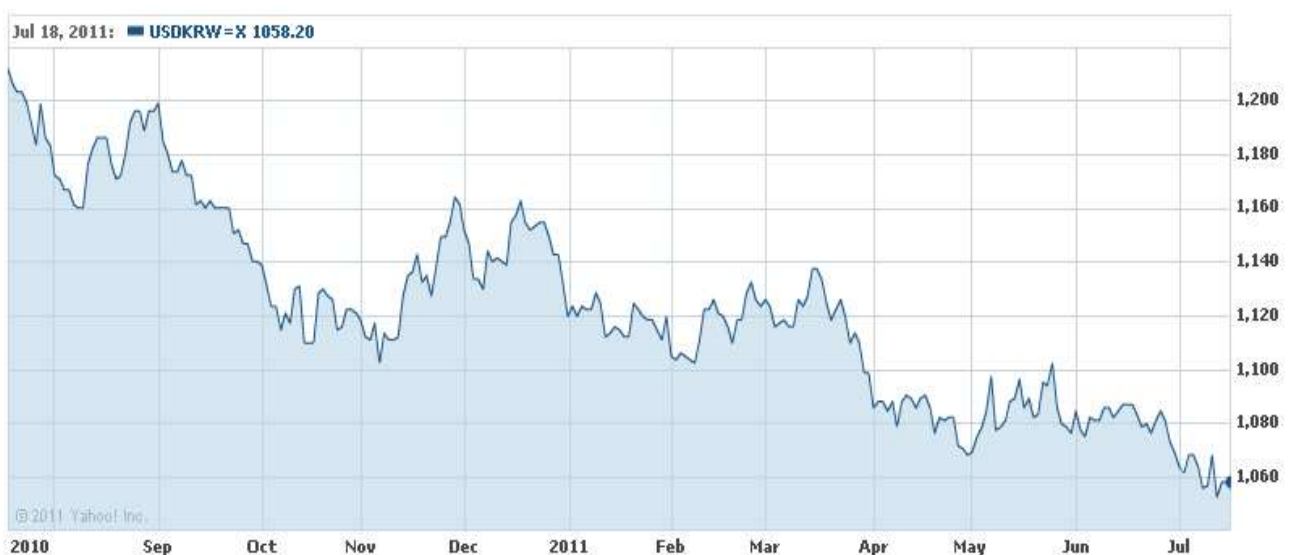
< 엔화/달러 환율 추이 >



자료원 : finance.yahoo.com

- (원/달러) 신흥국의 통화 가치 상승 경향과 맞물려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한국으로의 외국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달러화는 지난해부터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상황

< 원/달러 환율 추이 >



자료원 : finance.yahoo.com

□ 10년 국채 수익률

- 10년 국채 수익률은 2차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된 2010. 11월 이후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올해 4월까지 상승세 지속
 - 양적 완화 정책이 실시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안전 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 수익률 상승
 - 또한, 대규모 국채매입에 따른 통화량 급증 우려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상승하여 명목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
 - 올해 4월 이후에는 유럽 재정위기,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
 - 미국 국채를 대신할 수 있는 통화가 없어, 부채협상 난항 중에도 미국 국채 수익률은 낮은 수준 유지
- * 부채협상안이 통과된 8월 2일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 11월 이후 최저치인 2.56%까지 하락했다가, 2.62%로 마감

< 미국 10년 국채수익률 추이 >



자료원 : 美 재무부(www.treasury.gov)

2

실물경제 동향

□ 경제성장률

- 최근 미국 경제는 생산활동 부진 및 가계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게 둔화

- 1분기 경제성장률은 0.4%*를 기록, 전분기(3.1%) 대비 2.7p% 하락하였으며 2010년 2분기(1.7%)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시현

*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

<실질 GDP 전분기 대비 증감률>

	2010.Q3	2010.Q4	2011.Q1	2011.2Q(추정)
성장률	2.6%	3.1%	0.4%	1.3%

- 1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1.7%보다 크게 낮아진 것은 기업들의 재고량이 예상보다 감소하고,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

* 민간소비 증가율 : 3.6%('10.4Q) → 2.1%('11.1Q)

- 이 외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한 요인

* 1분기 정부지출은 5.9%(전기대비 연율) 감소하였는데 이는 '83. 4분기(△6.6%) 이후 최고 감소율

- 2분기 경제성장률은 1.3%로 1분기 대비 소폭 회복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시장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미국 경제의 Soft Patch 가시화

- 1분기 경제성장률 둔화는 국제유가 급등, 일본 지진피해 영향 등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이 큰데, 2분기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發 공급차질도 점차 정상화

- 다만,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높은 실업률도 지속되고 있어 큰 폭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

○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 : 소프트 패치 Vs. 더블딥

- (소프트 패치)상반기 미국경제 회복세 둔화의 주요 요인이었던 대외 충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경우,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전망
- (더블딥)다만,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고용상황 개선도 미흡하여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 경기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
- 재정지출 삭감안 통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해 더블딥 우려 제기
- 연준, 주요 IB 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,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0년(2.9%)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
- * 미국의 잠재성장률 예상 :월가 3~4%, 미연준 2.5~2.8%, OECD 2.0%

< 주요 기관별 2011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>

기관	연준	IMF	BMO	Merrill Lynch	Morgan Stanley
전망치(%)	2.7~2.9	2.5%	4.0	1.7	2.7

주 : 각 기관별 발표일 → 연준(7월), IMF(6.월), BMO(2월), Merrill Lynch(7월), Morgan Stanley(6월)
 자료원 : 각 기관별 자료 종합

□ 소비

- 201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오던 개인소비지출은 올해 들어 부진
- 작년 4분기에 3.6%에 달했던 개인소비지출(PCE) 증가율*은 올해 1분기에 2.1%까지 하락하였으며 2분기에는 0.1%에 그침.
- * 전기대비 연율 실질 증가율 기준(Percent change from preceding period in chained 2005 dollars)

< 미국 개인소비지출(PCE) 증가율 추이 >

구분	'10.1Q	'10.2Q	'10.3Q	'10.4Q	'11.1Q	'11.2Q
증가율(%)	2.7	2.9	2.6	3.6	2.1	0.1

자료원 :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(www.bea.gov)

- 주요 소비지표 중 하나인 소매매출액도 지난 5월에 전월대비 0.1% 감소하여 작년 6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6월에도 전월대비 0.1% 증가에 그치는 등 판매부진 지속
 - 6월 소비지출도 전월대비 0.2% 감소하여, 2009년 9월 이후 첫 감소세
-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(미시건대 기준)도 6월 들어 전월 대비 하락
 - *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: 73.1('11.1분기) → 69.8(4월) → 74.3(5월) → 71.5(6월)
- 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여력 축소와 높은 실업률 지속,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
 -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은 연초 갤런당 3.07 달러였으나 7. 18일 현재 3.68 달러까지 상승
 - * 5. 9일(\$3.96/gallon)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
 - 미국 실업률은 올해 3월까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 왔으나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고용상황 부진 지속
 - * 미국 실업률(%) : 9.4('10.12) → 8.8('11.3) → 9.0('11.4) → 9.1('11.5) → 9.2('11.6)
 - 4월 이후 미국 20대 대도시 평균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존주택 및 신규주택 판매도 부진 지속
- 하반기에는 자동차판매 회복세 지속, 가솔린 가격 하락 등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 - 고용상황 개선이 미흡하거나 국제유가가 다시 불안해질 경우 소비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

□ 고용(실업률)

- 6월 미국 비농가취업자수(Nonfarm Payroll)는 18,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(105,000명)를 크게 하회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최소 폭 증가

- 6월 중 민간부문에서는 고용인원을 57,000명 증가시켰으나 연방정부 및 주정부 고용인원이 39,000명 감소 → 순증가인원 18,000명
- 비농가취업자수는 올해 2~4월 중 월평균 215,000명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5월 이후 크게 부진한 모습
 - * 2011년 비농가취업자수 증가분 : 68,000명(1월) → 235,000(2월) → 194,000(3월) → 217,000(4월) → 25,000(5월) → 18,000(6월)
- 특히, 올해 들어 고용증가를 견인해 오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
 - * 서비스업 고용증가분 : 153,000명(1~4월 월평균) → 70,000명(5월) → 53,000명(6월)
- 실업률은 4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며 6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9.2%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 악화 추세
 - *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경제위기 前 약 5%였으나, 경제위기 後에는 7% 내외로 추정
- 6월 중 실업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전월(39.7주) 대비 0.2주 증가한 39.9주를 기록, 사상 최장기록 갱신
- 실업 장기화로 구직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6월 중 노동참여 인구 비율이 64.1%까지 하락, '8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도 미흡

< 미국 실업률 추이 >

구분	'10.10	'10.11	'10.12	'11.1	'11.2	'11.3	'11.4	'11.5	'11.6
증가율(%)	9.7	9.8	9.4	9.0	8.9	8.8	9.0	9.1	9.2

자료원 : 美 노동부(www.labor.gov)

- 미행정부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일본의 지진과 유럽의 재정위기, 고유가 등 외부요인을 지목

□ 물가

-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 모두 오름세

- 6월 중 소비자물가(CPI)는 전년 동월대비 3.6% 증가하였으며 생산자물가(PPI)는 전년 동월대비 7.0% 오르는 등 물가 상승세 지속

< 전년 동기대비 미국 물가상승률 추이 >

구분	'10.1Q	'10.2Q	'10.3Q	'10.4Q	'11.1Q	'11.4월	'11.5월	'11.6월
CPI(%)	2.4	1.8	1.2	1.3	2.1	3.2	3.6	3.6
PPI(%)	4.8	4.4	3.8	3.9	5.0	6.8	7.3	7.0

주 : 전년 동월대비

자료원 : 美 노동부(www.labor.gov)

- 다만 전월 대비로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모두 하락*하였는데, 이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제품의 가격 급등세가 둔화되었기 때문
 - * 6월 물가상승률(전월대비) : 소비자물가 $\Delta 0.2\%$, 생산자물가 $\Delta 0.4\%$
- 최근의 국제유가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,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
 - 국제유가 하락세로 6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대비 4.4% 감소하는 등 최근 물가상승의 주범이었던 에너지 가격 안정 추세
 - 6월 중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과 비슷한 3.0%로 나타나, 향후 물가상승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

□ 산업생산

- 산업생산은 2009년 3분기 이후 회복세를 지속해오고 있으나 올해 2분기 들어 회복세 크게 둔화
 - 2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0.8%(전기대비)에 그쳐 전분기(4.8%)에 비해 생산 활동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히, 4월과 5월에는 전월대비 각각 0.1% 감소

< 미국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>

	'09.3Q	'09.4Q	'10.1Q	'10.2Q	'10.3Q	'10.4Q	'11.1Q	'11.2Q
총산업	5.3	5.6	8.1	7.1	6.7	3.1	4.8	0.8
제조업	5.9	5.4	6.8	8.6	5.1	2.9	6.6	0.1

자료원 : 美 연준(www.federalreserve.gov)

- 제조업 경기지표 중 하나인 ISM 제조업 지수는 소폭 반등 후 급락
 - ISM 제조업 지수 : 61.1('11.1Q) → 60.4('11.4) → 53.5('11.5) → 55.3('11.6) → 50.9('11.7)
- 2분기 산업생산 둔화는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
 - 일본 지진피해의 영향이 본격화된 4월 이후 자동차 및 부품 생산은 전월대비 감소세 지속
 - * Automotive Products 생산증가율(전월대비) : $\Delta 3.9\%$ ('11.4) → $\Delta 0.4\%$ ('11.4) → $\Delta 0.6\%$ ('11.4)
 - 따라서,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글로벌 공급차질이 점차 정상화되는 3분기 이후에는 산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
 - 그러나, 이외에도, 소비둔화 가능성에 따른 재고조정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도 최근 산업생산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 꼽히고 있는 만큼, 향후 수요 부분의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

□ 설비투자

-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5.7% 증가하는 등 꾸준한 회복세 지속
 -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신흥시장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해외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설비투자 지속

< 미국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>

분기	'10. 1분기	'10. 2분기	'10. 3분기	'10. 4분기	'11. 1분기	'11. 2분기
증가율(%)	20.4	24.8	15.4	7.7	8.7	5.7

주 : 전기대비 연율 기준

자료원 :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(Bureau of Economic Analysis)

○ 미국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

- 원가절감과 신흥시장 수요에 힘입어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력도 충분한 상황
 - * 2010년 미국기업들의 수익(profit)은 GDP의 12.5%를 기록, 통계작성 이후 최고 수준
- 또한, 금융시장 안정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태도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고 금리도 당분간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설비투자 관련 금융비용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긍정적인 요인

□ 주택시장

○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

- 4월 중 미국 내 2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*은 전월 대비 0.1% 감소하는 등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(3월 $\Delta 0.3\%$)
 - * S&P/Case-Shiller Home Price Index 기준, 계절 추세치 조정 후
- 다만,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FHFA* 주택가격 지수는 4월 중 전월대비 소폭(0.8%) 증가하여 작년 5월 이후 첫 증가세 시현
 - * Federal Housing Financial Agency

○ 5월 중 기존 및 신규주택 판매가격은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

- 기존주택 판매가격 증가율 : $\Delta 1.8\%$ (4월) $\rightarrow \Delta 3.8\%$ (5월)
- 신규주택 판매가격 증가율 : 6.5% (4월) $\rightarrow \Delta 2.1\%$ (5월)

○ 6월 중 주택 착공 호수는 전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 시현

- 6월 중 착공된 주택은 629,000호로 전월(549,000) 대비 14.6% 증가하

였는데, 이는 미국 내 악천후로 지연되었던 주택공사가 6월 들어 대거 재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

- 다만, 주택시장 침체 이전인 2008년 6월(1,066,000호)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
- 주택 모기지 신청건수는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주택수요가 부진을 보이면서 전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
 - 모기지 신청건수 증가율 : $\Delta 0.3\%$ (4월) $\rightarrow \Delta 0.1\%$ (5월) $\rightarrow \Delta 3.0\%$ (6월)
-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나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회복할 것으로 전망
 -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
 - 미국의 국책 금융기관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압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'깡통주택'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고려 중
 - * 깡통주택(underwater house) : 주택가치보다 대출금이 많은 주택

□ 대외 교역

* 상품교역액(Trade in Goods) 기준

- 올해 5월 중 상품 수출액은 전월 대비 12억 달러 감소한 1,251억 달러 기록
 - 산업용 원부자재($\Delta \$18$ 억), 소비재($\Delta \$4$ 억), 식음료($\Delta \$1$ 억) 수출 감소에 기인
 - 다만, 전년동월 대비로는 17.3% 증가하는 등 수출 증가세 지속
- 5월 중 상품 수입액은 전월 대비 53억 달러 증가한 1,900억 달러 기록
 - 품목별로는 산업용 원부자재($\$43$ 억), 자본재($\$12$ 억), 자동차 및 부품($\$6$ 억) 수입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 시현
 -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.0% 증가하는 등 수입 증가세 지속

- 5월 상품수지 적자는 649억 달러를 기록, 전월(\$582억) 대비 67억 달러 증가
- 금년 5월 무역수지 (상품+서비스) 적자는 502억 달러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 기록
 - ※금융위기 이후 2009년 5월 255억 달러까지 감소,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
 - ※(트리핀의 딜레마) 기축통화인 발행국인 미국은 국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필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⇒ 국채발행으로 적자를 메우고, 발행한 채권만큼의 달러를 발권 ⇒ 재정적자 확대로 귀결

<참 고 : 트리핀의 딜레마 >

※ 벨기에 출신 예일대 교수 트리핀가 1960년대 주장한 이론

■ 달러의 역설

- 미국 경상수지 적자 ⇒ 국제시장 달러화 유동성 증가 ⇒ 달러 과잉공급 (가치하락) ⇒ 기축통화 신뢰도 저하 ⇒ 이자율 증가, 미국자산 매각확대 ⇒ 달러 기축통화체제 붕괴
- 미국 경상수지 흑자 ⇒ 유동성 감소 ⇒ 대미수출국 경상수지악화 ⇒ 지구촌 경제위축

3

주요 산업별 Snapshot

□ 무선통신기기

-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급성장에 힘입어, 무선통신기기 수요가 신장세
 - 2011년 1분기 기준 성인 35%가 스마트폰 사용
 - 통신사업협회(TTA)에 따르면 2011년 미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4.7억대, 2015년에는 10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
 - * 2010년에는 3.5억대 수준
- 2011년 5월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24.8%로 업계 선두로 부상, 이어 LG 21.1%, Motorola 15.1%, Apple 8.7%, RIM 8.6%순
 - 스마트폰의 약진으로, 애플, 삼성, HTC가 향후 휴대전화 시장을 이끄는 대표기업으로 자리를 굳혀할 것으로 예상
 - 업계 선두자리를 놓고, 애플 vs. 삼성, 애플 vs. HTC 등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특허공방전 가열

□ 자동차/자동차부품

- 3월 일본 대지진 사태 여파로 부품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일본브랜드 자동차 공급 감소로 성장세 일시 둔화
 - 도요타 등 일본계 자동차 기업들의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하반기에 회복세로 선회 전망
 - *하반기 일본계 업체의 생산회복에 따라 주요 기관들의 평균 전망치인 810만대에 근접할 전망
 - 재정지출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은 장기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 회복에 악영향 예상
- 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, 중소형 차량을 중심으로 BIG3와 한국브랜드의 반사이익이 두드러지며, 특히 한국브랜드의 점유율 급상승(7.6%→9.0%)

□ 반도체

- 반도체 기술이 응용된 전자제품의 생산 증가로 반도체 수요도 연간 약 1.6%씩 성장 예상
 - 그러나, 올해는 미국 경제의 더딘 회복과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수요 증가분 상쇄 예상
-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출하량은 증가세
 - 전 세계 판매실적이 작년대비 5.4% 성장해 3,144억 달러에 달할 전망
 - 2012년에는 7.6%, 2013년에는 5.4% 성장 예상

□ 가전

- 미국 내 가전제품의 수요는 판매처 감소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2.2% 씩 감소
 - 2011년에는 소폭의 수요 증가가 예상(약 789억 달러)되고 있으나, 경기 회복 둔화로 타격 우려

□ 기계

- 자동차 판매 회복에 따라,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이 시설투자를 늘리고 있어, 기계 수요가 증가
 - 항공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요 확대를 견인
 - 미국 공작기계 협회에 따르면, 제조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비 교체해, 올해 5월까지 공작기계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08% 증가
-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기계수요 감소 우려도 제기

□ 석유화학제품

-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화학 제품 출하액은 급증
 - Census에 따르면, 올해 5월 정유 산업의 출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.8% 증가한 3,211억 달러, 화학제품은 9.7% 증가한 3,078억 달러,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은 4.7% 증가한 781억 달러를 기록

□ 섬유/의류

- 온라인/홈쇼핑 판매 강세에 힘입어 회복세(신규주문, 생산 모두 증가세)
 - 저가 상품 위주 구매트렌드 강화

< 유통채널별 의류 판매 >

구 분	2010년 판매액 (단위 :십억 달러)	증감율(%)
온라인, 카다로그, 홈쇼핑	361.8	+13.5%
의류전문점	120.1	+6.8
백화점	186.6	-0.8

- 중국 소싱여건 악화(가파른 임금인상률 등)로 베트남, 방글라데시 등에 투자가 증가
 - 한편, 내수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데, 이는 Fast Fashion 트렌드로 인해 오더 주기가 빨라진 것에 기인
 -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대한 투자 문의도 점증 추세
- 백화점 자체 브랜드(PB) 선호, 공급망 관리 강화(신규 공급선 발굴 보다는 기존 공급선 유지)

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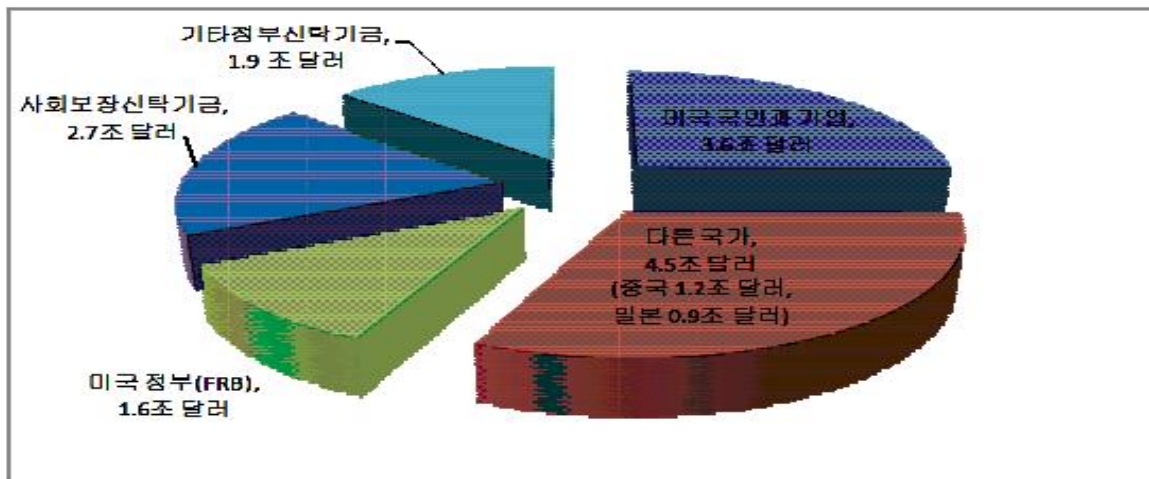
주요정책 동향(재정정책을 중심으로)

□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현황

○ 2011년 말, 15.5조 달러(GDP의 102%)에 이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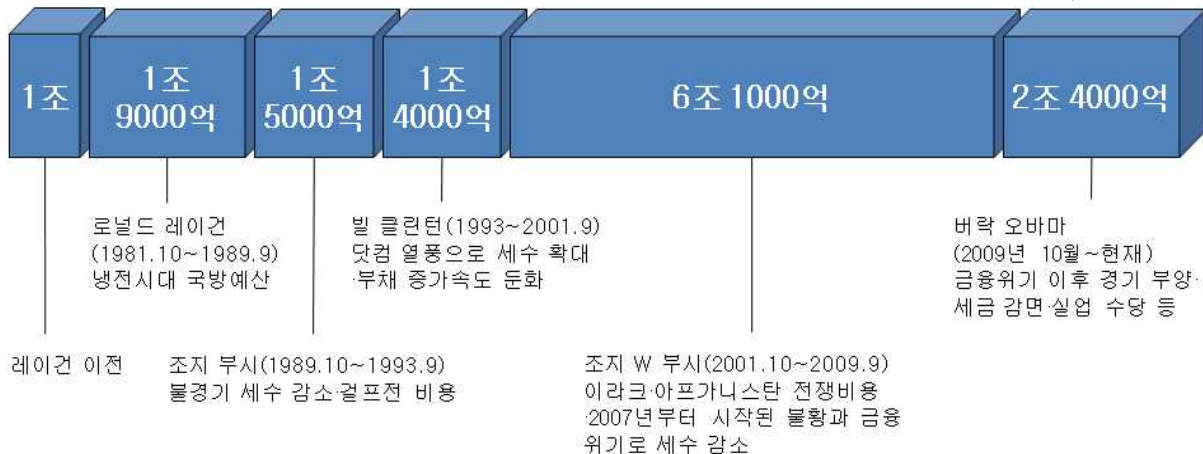
- 부채한도 14.3조 달러를 상회
- 해마다 부족한 지출액의 40%는 부채를 통해 충당
- 백악관은 금년 회계연도(2010.10~2011.9)에도 세수는 2.2조 달러, 지출은 3.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

< 미국 부채(14.3조 달러) 구성 >



< 대통령 집권시기별 부채 누적 추이 >

(단위 : 달러)



- 지난 5월, 미 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채권발행 유예를 선언하며, 의회의 부채한도 증액을 촉구
 - 미국부채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8월 2일까지 부채한도증액법 의회 통과 필요
 - * 1940년 이후 부채한도가 78번 증액

□ 재정적자 감축안/부채한도인상안 (Budget Control Act) 타결(7.31)

-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, 공화당 지도부는 세수확대 없는 정부지출 삭감을 전제로 부채한도 연장안(Budget Control Act)에 극적 합의
- 하원은 269:161로 가결(8.1), 상원은 74:26으로 가결(8.2)

□ 법안 주요 내용

< 주요 내용 >

- 2012년 말까지 적용되는 부채한도를 3단계에 걸쳐 2.1~2.4조 달러 인상
-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2.1조~2.4조 달러 감축
- 균형재정을 위한 헌법수정 표결 연내 추진
 - *양원에서 모두 2/3이상 찬성해야 가결

- (1단계: 즉시) 올 9월까지 커버가 가능하도록 부채한도를 4,000억 달러 증액
 - 향후 10년간 9,170억 달러(3,500억 달러는 국방예산서) 재량적 지출 감축
 - * 공화당의 주장대로 부유층 대상 감세 폐지는 재정적자 감축안에 불포함
- (2단계: 9월 이후)상하원에서 모두 2/3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5,000억 달러 증액
- (3단계: 12.23까지) 1.2~1.5조 달러 부채한도 인상
 - (11.23까지)민주당 · 공화 상하원 의원 3명씩, 총 12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, 향후 10년간 추가로 예산을 1.5조 달러 절감할 수 있는 제안 제출
 - 세재개혁, Medicare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개혁 망라

- (12.23까지)위원회 제안은 수정 없이 의회 표결에 회부(up and down 투표)
- 제안 채택시, 1.5조 달러 부채한도 인상
- 위원회에서 최소 1.2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제안 제출에 실패하거나, 위원회 제안 부결시, 총 1.2조 달러 규모의 자동감축안(trigger)이 발동하며, 부채한도가 1.2조 달러 인상
- *국내지출과 국방지출에서 각각 6천억 달러 감축

< 연도별 재정감축 효과 >

(단위 : 십억 달러)

	‘12	‘13	‘14	‘15	‘16	‘17	‘18	‘19	‘20	‘21	총 계
1차 감축	-21	-42	-59	-75	-87	-99	-112	-126	-141	-156	-917
추가감축 (JSCDR*)	TBD	TBD	TBD	TBD	TBD	TBD	TBD	TBD	TBD	TBD	-1,200
총 계	TBD	TBD	TBD	TBD	TBD	TBD	TBD	TBD	TBD	TBD	-2,117

주 : JSCDR(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)

자료원 : 미 의회예산국(Congressional Budget Office)

○ 균형재정을 위한 헌법수정 표결 연내 추진

*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

□ 시장반응

- (금융시장)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 및 유럽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세계 금융시장은 안도
- 정부의 지출삭감이 취약한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8월 2일 美 주식시세 일제히 하락

- (경제전문가 반응) 부채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주택경기 회복과 소비지출 확대, 기업들의 자신감 회복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논평

- 오히려 단기간 내 급격한 정부지출 삭감은 고유가, 이상기후, 일본 지진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
 - * 스티글리츠의 경고 : 경제 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재정긴축은 독약, 재정상태 개선보다는 고실업과 경기침체로 이어지기 십상

< 참 고 : 다시 고개드는 더블딥 우려>

- 2011년 분기별 GDP 성장률 : 0.3%(1Q), 1.3%(2Q)
- 7월 ISM 제조업지수 : 50.9로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 54.5를 훨씬 밑도는 수준
- 6월 소비지출 : 전월 대비 0.2% 감소하여, 2009년 9월 이후 첫 감소세

- 지출삭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, 경기회복 둔화세를 감안해, 시행 초기에는 감축분을 최소화하였으나, 단순 연평균 감축액이 2,100~2,400억 달러에 달해, 민간소비 회복이 부진한 미국 경제 견인력 약화 예상

⇒경기부양수단으로 Fed의 통화정책(초저금리 유지정책, 초과지준부리울 인하, 국채매입)만 남은 상황으로 3차 양적완화 가능성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

- * 초과지준부리울 : FRB에 예치해 놓은 지불준비금 중 한도를 넘긴 초과지불준비금에 대한 금리

- (신용평가회사) 피치는 8월 2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

- 금번 합의를 통해 미 정부의 디폴트 위험성은 벗어났지만 S&P와 무디스가 미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기에 필요한 정부지출 감축규모로 제시한 4조 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

- (전 세계 파급효과)유럽, 중국, 브라질 등에서도 경쟁적으로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1930년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형태로 나타난 근린공핍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동반 악화를 야기할 우려

□ 한미 FTA 추진에 미치는 영향

○ 9월 중, 미 의회 통과 예상

- 미 행정부는 당초 8월 의회 휴회 전 한국을 포함 콜롬비아, 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부채한도 연장을 둘러싼 민주당, 공화 양당 공방으로 이행법안 제출이 9월로 연기

· 정부 디폴트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미 정치권은 부채한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금번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FTA 비준으로 관심이 옮겨질 것으로 기대

- Ron Kirk 미 무역대표부, 9월 의회 재소집 때 한미 FTA 신속히 처리 의지 표명

*미 의회 휴회기간 : 8.6~9.5

· TAA 갱신에 대해서는 양당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나,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FTA 비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

· 법안 처리순서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TAA 갱신과 한국을 비롯한 3개 국가와의 FTA 비준을 9월 의회 재소집시에는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현

○ 9월 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, 공화 양당 주요 의원들 보좌관 (staff)들과 백악관 담당 직원 간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의견 조율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

- 민주당 · 공화 상원 원내대표 간 민주당 · 공화 상원 원내 대표간 TAA와 FTA 법안 추진 방식에 대해 합의 발표(8.3)